

<서평>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메리 더글라스 저, 이윤경 역, 서울: 시대가치, 2023

정혜진*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 1921~2007)가 1999년 옥스퍼드 대학출판부에서 출간한 *Leviticus as Literature*가 지난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다. 콩고 카사이 지역의 켈레족에 대한 민족지학적 현지조사연구로 알려진 그녀는 넓게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신(후기)구조주의 인류학자로 분류된다.¹⁾ 그런데 오로지 ‘인류학자’로만 메리 더글라스를 알고 있는 독자라면, 그녀가 성서, 그것도 난해하다고 알려진 레위기에 대한 해설서를 썼다는 데 놀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결(purity)과 부정(impurity)을 둘러싼 학계의 논의를 조금이라도 아는 성서학도라면 그 이름이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레위기 연구에서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 나병이나 하혈처럼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대표 질환으로 고통받던 이를 예수가 치유한 장면(막 1:40-44; 5:25-34)에 대한 해석들에서도 메리 더글라스의 이름은 적지 않게 언급되기 때문이다.

사실 메리 더글라스는 정결과 부정을 둘러싼 성서학계의 논의에 꽤려다 임의 전환을 가져온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은 한 구약성서 개론서에서 제사장계(P) 문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나온 다음의 서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신약학

1) 애덤 쿠퍼, 『인류학과 인류학자들: 영국사회인류학의 전통과 발전』, 박자영, 박승영 역 (과주: 한길사, 2005), 325-357; 앨런 바너드,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김우영 역 (과주: 한길사, 2003), 270-277 참조.

제사장적 내용은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평가절하 되어왔다.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성경학자들은 부정함의 규정을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 터부로 보고, 제사를 영적 의미가 빠진 통제된 야만으로 보는 뿌리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20세기 후반 들어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인류학자와 민속학자들이 현대 서구 문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의 위험 회피 관행, 터부, 의식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구약성경에 있는 위험 회피 관행을 새롭게 이해할 길이 열렸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는 구약성경의 부정함 규정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놓았다. 그는 그것을 만들고 준수한 사람들에게 의미있던 무언가를 전달하는 상징으로 해석할 것을 주장했다. 제이컵 밀그롬이나 최근의 조너선 클로완스 같은 구약성경 학자들은 그러한 사회학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이스라엘의 정결 관행을 연구하여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진전을 가져왔다.²⁾

정결(purity)과 부정(defilement/impurity)에 대한 더글라스의 인류학적 관찰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이상 전인 1966년에 나온 저서, *Purity and Danger*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말로 『순수와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의 한 장에서, 저자는 레위기 11장이 말하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을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변칙성 이론으로 설명했다.³⁾ 이를 통해 우리는 레위기가 말하는 부정이나 금기가 현대인들의 합리적 사고나 논리와 대조되는 혐오의 ‘감정’을 투사한 것이 아니라, 범주와 관련해서 고대인들이 가졌던 ‘이성적’ 논리와 사고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레위기보다 힌두 카스트 제도가 더 주요한 사례이기는 했지만, *Purity and Danger*에서 피부 질환이나 여성의 월경 관련 금기를 교차문화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나병이나 유출병에 대한 레위기 규정(12-15장) 및 관련 전통을 해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⁴⁾ 더글라스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해당 사회의 소우주로서 일종의 상징으로 공동체에 작용할 때 사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그 결과 몸을 둘러싼 피부의 질환이나 몸 안에 있는

2) 크리스틴 헤이스, 『구약 읽기: 역사와 문헌』, 김성웅 역 (파주: 문학동네, 2022), 243-244.

3) 메리 더글라스, 『순수와 위험: 오염과 금기 개념의 분석』, 유제분, 이훈상 역 (서울: 현대미학사, 1997), 77-99.

4) 더글라스, 『순수와 위험』, 183-204.

액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출과 관련된 제의 규정들은 공동체의 경계를 보호하려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더글라스는 “지식의 체계가 사회적 체계이며 그것을 규정하는 범주는 사회적 실체를 반영한다”고 보았던 에밀 뒤르캤의 관찰을 확장시킨 사회인류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⁵⁾ 또한 이러한 통찰은 신약성서학 연구에서 복음서에 대한 사회학적 비평에 주력하는 학자들을 통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정결지도 그리기로 발전하기도 했다.⁶⁾

이처럼 정결과 부정 주제와 관련해서 *Purity and Danger*가 성서학에 가져온 관점의 전환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러한 관점의 확장을 환영하고 성서 읽기에 적용하려는 이들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더글라스가 관찰하는 다양한 문화나 종교 전통의 일부 사례로 성서가 인용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적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듯 1990년대 이후 더글라스는 구약의 제사장계 문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연이어 내놓는다.⁷⁾ 이 연작들의 흐름에서 나온 것이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Leviticus as Literature*이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더글라스의 본격 성서 연구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책에서 더글라스는 정결과 부정을 다루는 데 가장 핵심적인 본문인 레위기에 집중하여 인류학자로서 자신의 탄탄한 학문적 내공을 투여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 전통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역사 서문에 친절하게 요약되어 있어 독자에게 충분한 인내가 되리라 생각한다.⁸⁾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5) 제리 무어, 『인류학의 거장들: 인물로 읽는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김우영 역 (과주: 한길사, 2002), 361.

6) 예를 들어, Jerome H. Neyrey, “The Idea of Purity in Mark’s Gospel,” *Semeia* 35 (1986), 98-128 참조.

7) 단독저서만을 든다면, Mary Douglas, *In the Wilderness: The Doctrine of Defilement in the Book of Numbers* (Sheffield, MA: JSOT Press, 1993);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Jacob’s Tears: The Priestly Work of Reconcil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8) 메리 더글라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이윤경 역 (서울: 시대가치, 2023), vi-xii.

대로 『순수와 위협』 이후 더글라스의 연구가 성서학에 미친 영향의 맥락에서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의 몇 가지 특징에 주목하려고 한다.

먼저 더글라스는 이 책에서 레위기라는 고대의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방법론적 전제들을 아주 충실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레위기의 유추적-상관적(analogical-correlative) 사고방식과 그에 따른 글쓰기(문체)를 이해하는 것이다.⁹⁾ 유추적 사고는 중국의 신화·시학적 사고와 유사하고, 수잔 랭거에 따르면 추론적 사고와 대조되는 표상적 사고와도 일맥상통한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추론적 사고가 우월하며, 유추적 사고는 원시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대비되어 폄하되곤 했다. 그러나 표상적 사고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뛰어난 예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며 과학의 이론화 작업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는 모델이다. 더글라스는 합리적 사고와 나란히 유추적 사고가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의 두 축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유추적 사고를 이해하는 것은 레위기를 읽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추적 사고는 구약성서 뿐 아니라 다른 고대 종교들의 전통을 해석하는 데도 적용가능한 보편적 특징이고, 더글라스는 『순수와 위협』에서 다양한 문화 속 사례들을 통해 이미 이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에서는 보편성보다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성이 두드러지면서 그 초점이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 고대 종교들의 공통점보다는 다신교였던 주변 세계의 종교들과 성서의 유일신교가 차별화되는 지점이 분명히 인식된다.¹⁰⁾ 다른 한편으로, 성서의 종교 안에서도 지위에 호소하는 위압적 진술이나 유추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레위기와, 감정과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신명기의 차이도 중요하게 지적된다.¹¹⁾ 레위기와 신명기의 차이는 각각을 형성한 사회학적 집단의 차이, 즉 성소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직자들과 세속적 사안들을 관장해야 할 행정가들의 서로 다른 삶의 자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¹²⁾

9) 더글라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17-37.

10) 더글라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1-6.

11) 더글라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51-52.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가 오경에 나타나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독특성 그리고 그 속에서 레위기의 사유 및 글쓰기 방식이나 그 배후의 사회 집단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다. 『순수와 위협』에 비교하면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의 규정들이 상징체계로 작동하면서 그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미치는 정치적 효과를 서술하는 데 저자가 훨씬 더 자제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한 여성의 부정에 대해서 말하는 다음의 대목을 보자.

[...] 수태한 여인의 부정함은 엄밀히 말해서 의례적이며, 성막과의 접촉에만 영향을 미친다. 출산 후 그녀는 일정 기간 말하자면 부정한 상태이며, 그 후 속죄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 외에는 그녀의 상태에 불길한 것이 없으며, 속죄를 요구받는다고 해서, 수치스럽거나 명예를 실추당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한 동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은 영역 정의의 문제, 즉 거룩한 구역과 물건을 세속적 행위로부터 분리하는 문제이다.

[...] 사실 그녀는 휴식의 특권이 필요하다. [...] 레위기는 여아가 태어나면 산모가 그 기간을 두 배로 늘려, 80일 동안 격리하도록 한다. 남이는 여아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인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 흥미롭게도, 남아가 수유를 위해 어머니에게 돌아갈 때 접촉으로 부정에 감염되지 않는다. 할례의식은 거의 확실하게 산모와 아기에게 예방력을 생기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아를 낳은 후, 산모의 부정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의식에 부여된 보호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¹²⁾

여기서 저자는 출산의 부정이나, 여아를 낳았을 때 두 배로 길어지는 격리 기간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순수와 위협』 이후 더글라스는 여성주의 인류학자로 분류되기도 했기에 이런 견해는 일견 놀라게 보인다.

사실 『순수와 위협』에서 월경이나 하혈 같이 여성에게만 나타되는 소위

12) 더글라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18.

13) 더글라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223.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신체 현상들이 오염을 매개한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에 대한 더글라스의 해석은 성서 속 여성들의 부정을 해석하는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주석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순수와 위험』에서 레위기의 정결 체계가 아프리카 원시 부족의 관습이나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와 나란히 비교 되었을 때, 그것이 해당 사회에서 계급(카스트)이나 남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가치 기준과 연동되어 하위계급이나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구조로 작동한다는 사회학적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을 확장시켜서 일부 연구자들은 그러한 제의 규정들이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에게 차별적인 제도로 전개되었던 사회적 상황을 재구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에 와서 마치 이런 해석 방향에 선을 그듯 더글라스는 성서의 경우 ‘오염’의 담론이 사회조직적 차원에서 외부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경계를 치는 최소한의 역할만 했다고 말한다. “오염이론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오염이 비난과 비하의 수단으로 여겨질수록, 나는 그것이 서양 전통의 가장 유명한 사례인 오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 일반 오염이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성서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이다.”¹⁴⁾ 오염 이론의 유효성을 전면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제한적 서술은 성서 본문 해석에 그것이 적용될 때 그녀 자신이 관찰한 사례들에서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것 이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눈앞에는 텍스트로서 전수된 레위기 본문이 존재할 뿐, 그것을 탄생시킨 세계가 그 자체로 놓여있지 않다. 더글라스가 현지 조사를 통해 방문했던 지역의 원시 부족들과 레위기를 탄생시킨 과거 세계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의 여러 집단 중 레위기를 형성한 사제들의 관점이 당시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했는지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더글라스의 인류학 방법론 안에서 재구성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성서학자들에게는 그 과거를 재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론과 그것을

14) 더글라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xvi.

적용한 가설들이 있고 더글러스 자신도 제이컵 밑그림을 비롯한 중요한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진지하게 참고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자신의 관찰을 성서에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인정하는 그녀의 서술은 현 상황에서 자신의 방법론이 가진 한계를 분명히 아는 학자적 정직성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책에서 필자가 흥미롭게 본 것은 레위기의 문학적 구조를 서술해 가는 과정이었다. 더글러스가 책의 앞 부분에서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작은 고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고리이다”라고 말할 때¹⁵⁾ 수사학적 비평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 새롭게 들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레위기의 전체 서사 구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의 끝부분인 11-12장에 이르러서 레위기의 전체 구조가 눈앞에 펼쳐지듯 생생하게 그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더글러스가 성막의 3중 건축(바깥뜰-성소-지성소)이 각기 레위기 1-17장, 18-24, 25-27장의 배치에 구조적으로 상응한다는 것을 공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¹⁶⁾

바로 여기서 독자들은 필자처럼 이 책의 제목이 왜 다른 것 가령 ‘인류학자가 읽는 레위기’가 아니라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성막이라는 공간에 투영해 사제들이 경험하는 종교적 진실과 삶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더글러스가 앞에서 이야기한 유추적 사고의 결과이다. 레위기를 탄생시킨 사제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관계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들이 거룩하게 보전하려 하는 성소라는 공간에 비추어 이야기한 것이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가 『순수와 위험』에 비해서 사회학적 해석이 약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더글러스 안에 있던 구조주의 문학비평가의 면모가 만개한 연구라고 긍정적으로 평하고 싶다.

15) 더글러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65.

16) 더글러스,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274(그림 11.3) 참조. 성막의 세 부분을 나누는 두 개의 회장에 해당되는 8-10장과 24장의 주제적 상응성, 18-20장의 박공 구성에 대한 그녀의 세밀한 분석은 레위기에 대한 전체 그림을 잘 보완해 준다.

독자들은 더글라스의 안내에 따라 성막의 바깥뜰을 한 바퀴 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건듯이 1-17장까지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휘장을 걷으며 18-20장을 만난다. 조금 더 건다가 또 하나의 휘장을 걷으면 레위기라는 동심원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25-27장을 만난다. 성막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여행 끝에 지성소에 들어가 독자들은 25장의 위대한 자유선언을 듣는다. 레위기라는 문학의 내용적 핵심에 육박해 들어가는 다른 뛰어난 주석들과 함께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를 읽는다면 레위기의 서사 형태(구조)가 지닌 내재적 의미와 가치를 독자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서학도들에게 이 책의 독서를 권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더글러스, 메리, 『순수와 위험: 오염과 금기 개념의 분석』, 유제분, 이훈상 역, 서울: 현대미학사, 1997.
- _____, 『문학으로 읽는 레위기』, 이윤경 역, 서울: 시대가치, 2023.
- 무어, 제리, 『인류학의 거장들: 인물로 읽는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김우영 역, 파주: 한길사, 2002.
- 바너드, 앨런,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김우영 역, 파주: 한길사, 2003.
- 쿠퍼, 애덤, 『인류학과 인류학자들: 영국사회인류학의 전통과 발전』, 박자영, 박순영 역, 파주: 한길사, 2005.
- 헤이스, 크리스틴, 『구약 읽기: 역사와 문헌』, 김성웅 역, 파주: 문학동네, 2022.

